

시연(施連) 칼럼

봄꽃 향기



권요신
좌원공파종회회장·칼럼니스트

3월의 하동(河東)포구는 매화꽃이 구름처럼 피어나고 쌍계사에서 화계 장터를 오가는 섬진강(嶺津江) 십리 길이 화사한 벚꽃으로 뒤덮인다. 그래서 섬진강(嶺津江)은 봄꽃이 천지를 휘날리는 강이 됐다. 이른 봄에 피어 사람들의 가슴을 환희로 채워주는 벚꽃은 나무 중에 가장 사랑스럽다.

고도(故都) 경주(慶州)도 이달 말부터 흠날리는 벚꽃잎이 웅단처럼 깔린다.

보문관광단지가 준공되었던 1979년부터 20만 그루가 넘는 벚나무가 심어져 벚꽃의 대명사처럼 불려진 일본 동경 우에노 공원보다 꽃잎이 더 흠날린다고 한다.

초봄의 나무 중 가장 사랑스러운 벚나무는 가지마다 꽃을 달고 있고 활짝 핀 꽃을 볼 때마다 보는 순간이 너무 짧다는 표현으로 세월의 빠르기와 견주기도 한다.

벚꽃을 지독스럽게 좋아하는 국가와 국민은 잔혹하기로 이름난 일본(日本)이다 보니 벚꽃과 얽힌 얘기가 많다. 태평양(太平洋) 전쟁을 일으킨 일본 제국주의자(帝國主義者)들은 벚꽃이 얇은 바람조자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집단(集團) 전사를 부추겼다고 슬퍼했다.

꽃잎이 흠날리는 것처럼 일본의 남자로 태어난 제군들은 육탄전(肉彈戰)의 영웅이 되라는 노래가사로도 인용됐다. 일본의 무사도란 책에도 “꽃은 벚꽃” 벚꽃과 무사의 비장한 죽음을 대칭시켰다.

벚꽃은 생명에 집착하는 다른 꽃과는 달리 “아름다우면서도 가슴속 깊이 환희를 심어주며 덧없이 돌아가고 바람에 흠날리는 비장함의 맛이 길게 이어진다. 필 때보다 지는 시기가 길다는 의미다. 그 화려했던 꽃잎이 실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잘나에 떨어지는 꽃의 의미를 두고 생사를 틀락거리는 중생(衆生)들의 가냘픈 모습으로 비유했다는 부처님의 심오(深奧)한 본뜻과는 달리 시대 세상의 모습에 따라 해석(解釋)이 달라졌다.

은은한 난(蘭) 향기는 더 명품이어서 세계인들로부터 귀한 사랑을 받는다. 여름에 피는 연(蓮) 향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게 하는 향이다. 초여름 담백하게 걸친 라일락 향은 감미롭고 싱그럽고 낭만적이다.

장미는 마음을 뺏는 꽃 아래로 내려가면 숨긴 가시에 찔리나 청춘(青春)남녀의 연정을 불러오는 향이어서 더 가깝다.

채송화도 봉숭아도 담장을 기는 나팔꽃도 하나같이 정겨운 봄꽃들이다.

언제 이 땅에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오랜 세월 우리 곁을 지킨 꽃들이다. 나팔꽃과 맨드라미의 고향은 인도, 접시꽃은 중국(中國), 채송화(菜松花)는 남미(南美), 봉숭아는 동남아시아가 고향이지만 이미 정이 짙은 한국인(韓國

人)들의 정서를 품은 꽃들이다.

늦봄에 피는 밤꽃만큼 독특한 향은 없을 것 같다.

해질 무렵 바람에 실려 육신의 유혹을 실은 것 같은 비릿한 밤꽃 향은 잠을 설치게 하는 향이라고들 한다. 예부터 시인 묵객들은 지는 꽃들을 보면 청춘도 덧없이 가고 마는 세상 무상(無相)을 노래했다.

저마다 꽃을 피우는 시기가 다른 것은 번식 때문이다.

식물은 동물처럼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 이동할 수가 없으니 꽃피는 시기로 경쟁에서 살아남는다. 개나리는 꽃가루 꿀 향도 적지만 일찍 너너하게 꽃을 피워 겨우내 굶주린 벌 나비를 독차지한다.

이런 질서가 무너지면 생태계가 혼란에 빠진다. 일찍이 소동파(蘇東坡)는 ‘봄밤 한 시각은 천금 값’이라고 비유했듯 짧은 봄날을 소중하게 누릴 일이다.

봄을 가장 쉽게 풍성하게 느끼려면 남쪽 땅 지리산(智異山) 하동(河東) 보성(寶城) 일대의 연녹색 차밭이 가장 좋다. 그곳이 지리산(智異山) 야생 차(茶)밭이면 더 좋다.

사람이 차(茶)씨를 받아 심으면 차나무의 뿌리는 여러 갈래인데 비해 새나 산짐승이 옮겨 놓은 씨앗이 내렸을 경우는 밑둥이 크게 하나로 자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차(茶)도 흠밭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돌산 틈바구니에서 자란 우전 차는 기운이 강하고 여섯 잎 차(茶)꽃 모양도 더 청아하다. 돌산에서 무림고수가 출현하듯이 차도 돌산에서 나오면 차맛의 깊이가 더 있다.

다섯 잎 차(茶)꽃의 꽃말은 영원한 삶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한다. 꽃말처럼 노란 꽃술을 감싸는 꽃잎 색깔이 어머니의 치마폭처럼 수수하다.

“살아가는 길이 너무 편안하게도, 인색하게도, 어렵게살지도 말라”는 해석이 붙어 있으니 고요함(靜)과 화경청적(化敬淸寂)으로 이끄는 데는 차(茶) 마시는 것이 단연 으뜸이다.

봄이 왔는데도 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도시 생활이다. 봄의 기운을 마음껏 느끼고 그 속에 갇혀 살아야 하는 게 삶의 도리이지만 그게 그만 세속의 틀 속에 하다하게 묶여 버리고마니...

올해 봄맞이는 더 그렇다. 인간이 계획을 잡으면 신(神)이 비웃는다는 말이 딱 들어 맞다. 1년 넘게 코로나란 몹쓸 역병(疫病)에까지 묶여버리다니 벚꽃의 화려함도 난(蘭)향도 가까이 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진한 차(茶) 향에 짜증스런 생각들을 털어버리는 게 다섯 잎 차꽃의 꽃말처럼 화경청적(化敬淸寂)일 것 같다.



제사비요(祭祀備要)



성균관 전례사典禮師 등소能素 권정택 權貞澤

제사(祭祀)의 종류(種類)

■ 담제(禫祭)

담제는 대상을 지낸 후 한 달을 가운데 두고 지내는 것으로 죽음으로부터 27개월이 되는 달 삼순 중 한 달을 가리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가리어 지내는 제사

■ 소상(小祥)

소상은 초상으로부터 윤달을 계산하지 않고 총 13개월 되는 기일 즉 기년 되는 날에 지내는 제사

■ 길제(吉祭)

길제는 담제를 지낸 다음 날 삼순(三旬) 중 하루를 택하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로 하여 지내는 제사

■ 이제(禋祭)

이제는 아버지의 사당 제사를 말하며 이(示+爾)라는 뜻은 가깝다는 뜻이다.

■ 기제(忌祭)

기일 제사를 약칭하여 기제사 또는 기제라 한다.

기제사는 고인이 돌아가신 날에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제사이며 오늘날 제사라 하면 통상 기제사를 의미한다.

기제의 봉사대상은 과거에는 『주자가례』에 따라 4대조까지이었으나 요즘에는 건전 가정의례 준칙에 의거 2대조까지와 후손이 없는 3촌 이내의 존·비속에 한하여 지내기도 한다.

제사 시간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 자정부터 새벽 1시 사이 모두가 잠든 조용한 시간에 지낸다. 그러나 요즘은 시간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그날 해가 진 뒤 어두워지면 적당한 시간에 지내기도 한다.

제사는 제주의 집에서 지내는데 고인의 장자(長子)나 장손(長孫)이 제주로서 제사를 주재한다. 장자나 장손이 없을 때는 차자(次子)나 차손(次孫)이 주관한다.

■ 차례(茶禮)

음력으로 매월 초하룻날과 보름날, 그리고 명절이나 조상의 생신날에 간단하게 지내는 제사이다.

요즈음에는 정월 초하루의 연시제(年始祭)와 추석의 절사(節祀)가 이에 해당한다.

보통 아침이나 낮에 지내며 제수와 절차는 기제사에 따르지만, 아침이나 낮에 지내

며 축문이 없고, 술잔은 한 잔만 올린다. 연시제의 경우 떡국을 메(밥) 대신 올린다.

음력 8월 보름에 지내는 추석 제사는 차례를 지내는 봉사대상은 모든 직계조상으로 하며, 제수는 새로 익은 햇곡식과 햇과일로 한다.

■ 시향(時享)

음력 10월에 5대 이상 조상의 묘소에 올리는 묘제(墓祭)

■ 사시제(四時祭)

일년에 4번 춘하추동 4계절의 가운데 달(仲月, 2월, 5월, 8월, 11월) 상순(上旬)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가리어 지낸다. 보통 날짜는 전달 하순에 정한다.

제사 전 3일 동안 제제(齋戒)한다.

제사 하루 전날에는 정침을 깨끗이 청소하고 신주 모실 자리를 마련한다. 방 한가운데에 향탁(香卓)을 놓고 그 위에 향로 향합 촛대를 놓는다. 주부는 제기를 갖추어 손질하고 제 잔을 정결하게 마련한다.

밤새도록 촛불을 밝혀 두고 다음날(제삿날) 날이 밝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 제주 이하 모든 참사자는 제복을 입고 사당으로 나아가 봉향한 뒤 신주를 정침으로 내모신다.

제사를 지내는 순서는 참신, 강신이 끝나면 초헌, 아헌, 종헌에 이어 유식, 함문, 계문을 한 뒤 수주를 한다. 사신하고 나서 납주(納主)하면 상을 물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사례편람’에는 시제야말로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되어있지만, 요즘에는 시제를 거의 지내지 않는다.

■ 사망제(弔望祭)

사당에서 매월 초하루, 보름날 올리는 제사

■ 전(奠)

천이가 있었는데, 이것을 천신이라 해서 철에 따라 새로 나온 곡식으로 만든 음식이나 과일 등을 사당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제주(祭主)

제주는 고인의 장자 또는 장손이 되며, 장자 또는 장손이 없는 경우에는 차차 또는 차손이 제주가 되어 제사를 주재한다. 상치한 경우에는 남편이나 그의 자손이 제주가 되고 자손이 없이 상부(喪夫)한 경우에는 아내가 제주가 된다.

제주(祭主)라 함은 제사를 맡아서 지내는, 즉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참사자(參祀者)

기제사는 고인의 별세한 날을 매년 추모하는 의식으로 순수한 가족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행사에는 고인의 직계 자손과 가까운 친척들만이 참여하게 된다.

특히 고인의 직계 자손으로서 먼 타지방에 출장하였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제사를 지내는 시간쯤 해서 여행지에서 묵념으로라도 고인을 추모하여야 한다.



담박명지澹泊明志
욕심이 없고 맑은 마음으로 뜻을 밝히고

영정치원寧靜致遠
평안하고 정숙한 자세로 위대한 포부를 이룬다.

재갈량이 아들에게 교육시키는 내용으로 마음을 비워야 세상 이치를 깨칠 수 있고 심성이 안정되어야 멀리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근당 勤堂 권태은權泰殷의 전서체 친필



제33회 안동권씨 전국청·장년체육대회 안내



울산광역시 야경

신축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 산청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32회 안동권씨 전국청·장년체육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격 취소되었습니다.

금년 제33회 안동권씨 전국청·장년체육대회는 4~5월 중 울산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내년으로 연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연락처 : 전국청·장년협의회 회장 권갑수 010-3582-8279
울산청·장년회 회장 권명달 010-3877-5674
대중회 사무처 02-2695-2483~4

■주최 : 안동권씨 전국청·장년협의회

■주관 : 안동권씨 울산청·장년회

■후원 : 안동권씨 대중회, 울산중친회